

차례

발간사 노성태 (산성꿈장학재단 이사장)

1부 함께 물들었던 봄의 색깔

함께 물들었던 봄의 색깔	서	9
멘티와 함께한 나의 사계절	오	21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장미꽃	배	31
행복해지는 것에는 공부가 아니어도 돼!	강현	39
내가 니 곁에 항상 있어 줄게	김	49

2부 닝쿨처럼 이어지는 꿈장학 멘토링

닝쿨처럼 이어지는 꿈장학 멘토링	김	61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어줄게	김	71
멘토와 멘티로 만난 너와 나의 성장 이야기	조	83
뜻밖의 축복을 가져다준 아이	김	95
같은 꿈을 꾸는 너, 나, 우리	정	107

3부 서로의 마음에 물들다

서로의 마음에 물들다	정	117
다정한 교실에서 2년	김	127
멘토링 꿈장학 성장기	정	137
누군가 나를 지켜봐 준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	임	149
너에게 내가 한줄기 빛나는 길이 되어 줄 수 있다면	정	161

4부 길고양이에서 집고양이로

길고양이에서 집고양이로	노	175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새로운 도전	서	183
멘토링의 추억이 삶의 위안이 되기를	박	193
멘토가 밟아본 적 없는 영토까지 밟도록	노	205
여기, 세상을 향한 도움달기	신	213

심사평 심달자 (심사위원장)



함께 물들었던
봄의 색깔

1부



내가 니 곁에 항상 있어 줄게

목포중앙고등학교

멘토가 엔티에게 보내는 편지

안녕~ [] 님 우리가 만난 지 벌써 2년이 훌쩍 넘었네, 입학했을 때 기억나니? 철없이 웃으면서 떠돌고 있던 너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큰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던 순간이 선생님과 너의 첫 만남이었어, 선생님은 아직도 머릿속에 너의 첫 모습의 기억이 생생하단다, 그동안 [] 답임으로 누구보다 너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했는데 항상 즐거운 모습에 마음 한구석에는 고민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을 때 미안하다는 생각부터 들었단다, 혼자서 힘든 질풍노도의 시기를 헤쳐가는 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생님이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서 더욱 미안하기도 했단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배운 가족이나 친구들을 원망했을 법한데도 넌 항상 웃는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해주었고, 힘든 시기에 누구도 너의 손을 잡아 주지 않았을 때도

웃음을 머미고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게 하였고, 삶에 대하여도 긍정의 자세로 임하도록 해주었다. 멘티에게 나는 멘토였으나 멘티는 나에게 멘토도 되어주었다. 더 나가서 재단에서 진행하는 멘토를 위한 각종 연수는 멘토로서 역할 수행에 좋은 자극제가 되었고 교사로서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공장학금 관리

공장학금은 지급될 때마다 전액을 멘티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처음에는 월별로 지급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의 경우에 스스로 공장학금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공장학금 관리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하였고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었다. 공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공장학금은 멘티의 학업과 관련된 부분에 사용하도록 안내하였다. 전공과 관련된 도서 구입,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도서 구입, 실습비, 그리고 전국규모의 요리대회 참여를 위한 각종 경비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 해군조리부사관 예비생도로서 심신 단련을 위한 운동학원비 및 부대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하였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멘티의 체격이 눈에 띄게 발달한 변화가 있었다. 특별히 체력단련과 관련해서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금언(金言)을 멘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의 금액은 반드시 독서에 할애하도록 안내하였다. 멘티가 읽고 싶은 책과 멘토가 추천한 도

서 중에서 구입하여 읽도록 하였다.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은 멘티의 미래에 지평선을 열어줄 수 있는 자양분이 되기 때문이다.

멘티와 멘토가 나눈 편지¹⁾

* 멘티가 멘토에게

선생님께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를 항상 좋은 쪽으로 봐주시고 좋은 것만 해주시려고 해주시고 항상 좋은 말로 저를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반 친구들과도 친해지고 성격도 밝아져서 학교생활이 더 재미있어진 것 같습니다. 저를 응원하시는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졸업한 뒤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저도 저만의 방법으로 보답할 수 있을 때는 계속 이 고마운 마음을 보답하겠습니다.

* 멘토가 멘티에게

[] 공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지낸 과정이 좋은 결과로 예준이에게 선물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 ≧ 공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어머니가 떠올랐을 것 같군요. 효자니까요. 그다음은 [] 에

1) 공장학생으로 선정된 뒤 멘티와 멘토가 나눈 편지 글을 멘티의 동의를 얻어 올림.